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성탄 전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 오셔서 “내일 성탄절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성탄의 아침,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의 청소부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 라고 하시고 그를 맞이해 들었습니다.

점심 때가 다 되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흠이불에 어린 아이를 싸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측은하여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 있는 아기의 발을 할아버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보았던 조그만한 신발을 신겨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꼭 맞았습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 보았습니다.

어느 듯 마을에 저녁 기운이 몰려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 때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달아나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훔치고 달아나던 아이를 붙잡아 때리며 경찰서로 데리고 갈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 때 파파노는 그 할머니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배고 고파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주고 내가 대신 과일 값을 지불하지요 파파파노의 마음에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했고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길 저 쪽으로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꿈이었던 말이지” 라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 때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고 하는 어제 밤 꿈의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세 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안은 여인으로 마지막은 거지로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거리에는 눈이 소복 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p>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p>	<p>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p> <p>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p>	<p>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p>
<p>제8권 성탄절</p>	<p>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p>	<p>2006년 12월 25일</p>
<p>☎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p>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행복한 크리스마스



구두쇠 스크루지는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어디론가 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거지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하릴없이 거리를 거니는 일에서 이토록 큰 행복을 맛보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서-

* 평생을 자기 욕심에 갇혀서,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던
구두쇠 스크루지가 생전 처음 다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행복해하는 장면입니다.
물질이 주는 행복만이 전부인, 마음이 가난했던
스크루지에게 그 어떤 크리스마스보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도
Christmas Pray

주 악

인 도 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 송
Hymn

109장

다 같이

기도
Pray

유아세례식

나은서

이채원

Tiffany

성가대 크리스마스찬양
Choir

나무심자가 성가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18-25

인 도 자

설 교
Sermon

요셉의 신앙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14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답 송
Response Song

115장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교회 생활』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5시

메리 크리스마스

박목월

크리스마스 카드에

눈이 왔다.

유리창을 동그랗게 문질러 놓고

오누이가

기다린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 네 개의 셋파란 눈동자.

— 네 개의 셋파란 눈동자.

참말로 눈이 왔다.

유리창을 동그랗게 문질러 놓고

오누이가

기다린다, 누굴 기다릴까.

— 네 개의 까만 눈동자.

— 네 개의 까만 눈동자.

그런 날에

외딴집 굴뚝에는

감실감실 금빛 연기,

감실감실 보랏빛 연기,

— 메리 크리스마스

— 메리 크리스마스